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毎月一日発行）
2022년 2월 1일 (화) 제 813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 · 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青丘文化社

전도주일 설교

복음 전도의 사명

<고전9 : 16~19>

조 영 철 목사 (선교위원장 , 오사카북부교회)

해 마다 2월 2번째 주일은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KCCJ)가 전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크리스챤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는 2년이상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우기 최근에는 변이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감염확대로 인해 연일 과거 최다(5만명 이상, 1월 22일 기준)의 감염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2년가까이 대면예배와 더불어 비대면인 온라인예배를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전도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 : 2) 즉 이 말씀은 주어진 현실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1.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전도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할 사명일 뿐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이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글 번역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불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 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사명이란 맡겨진 직분, 임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딤전 1:12에서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주시되, 특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2)는 말씀처럼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같이 달음질하라" (고후9:24)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명령만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요(갈 6 : 7), 우리가 행한대로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계22 : 12). 우리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크신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19를 비롯해서 우리 앞에는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환경과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도의 사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대야말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좋은 기회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상을 기대하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금년 1년동안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도위원회

청년회전국협의회, 전국교회 여성연합회와 연석회의 개최

신도위원회와 청년회전국협의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와의 연석회의가 각각 1월 16일과 2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청년회전국협의회와의 회의에서는 신도위원회가 세운 이번회기(2021년11월~) 활동목표의 첫번째가 “전협 · 각지방회청년회의 재건 및 청년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출석한 전협임원(대표:차유오, 부대표:토카이나츠키, 총무:엄지용)은 현재 임원이 3명밖에 없는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전국교회의 청년을 파악하고 연락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어려움이 호소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도위원들의 제안으로는 이번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전국의 새로운 청년들을 향한 어필활동과 교류, 개교회의 청년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회, 장로회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와의 회의에서도 먼저 신도위원회의 이번 회기 활동목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요청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전국여성회 임원들의 요청사항으로는 신도위원회와 각지방회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의 모색, 2년단위의 단기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폭 넓은 연령층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등이 있었다. 신도위원회 측에서의 제안도 있었다. 여성신도의 교류의 장 창출과 후계자 육성을 위한 협동이 제안되었고, 교회내에서의 여성지위향상 · 개선을 위한 활동 또한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의 현실화를 위해 신도위원들이 다섯지방회의 여성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해 나갈 의향이 확인되었다.

신도위원회는 이번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총회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교회의 발전과 신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신도위원회의 이번회기 활동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전협 · 각지방회청년회의 재건 및 청년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전국여성회 · 각지방회여성회와의 연계 및 여성회활동과의 협동
3. 3,40대 남성신도의 교류 및 회의 장년(남성)회 친목형성과 전국조직화
4. 전국장로회와의 연계 및 교회발전을 위한 협동연구와 활동의 실천
5.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신도간의 교류와 네트워크형성
6. 교회의 사회공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민족다문화의 선교활동을 촉진

특별수기

신임 선교사의 각오

치쿠마비전전도소 김 형 진 목사

저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의 지원으로 백석 총회에서 일본 선교사 파송을 받아 2020년2월 19일,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는 시기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치쿠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 문제, 물가가 비싸고집구하기도 어려웠고 자녀들 학교 입학 등,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유로 신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예배당의 관리 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아갔습니다. 예배실을 깨끗이 하고 떠나간 신도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오든지 안오든지 새벽예배, 주중예배, 주일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신도들을 만나게 됨으로 떠나갔던 분들 다시 출석하게 되고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새롭게 참석하는 신도들도 생겼습니다. 한 명의 신도가 귀하다는 것을 생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왜 귀한지 알겠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면서 담임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신도를 향한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난 2021년8월 위임식 때에는 더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식이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부족한 저를 믿어준 신도들과 중부지방회와 총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다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다행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두 자녀가(쌍둥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닌지 2년째 인 지금은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총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지 뭘 잘 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2년을 살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 자칫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잘 살아내는 것도 사역이라는 총회 목사님들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일본선교사로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나가노교회 최화식목사를 비롯한 나가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日本그리스도教会와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매년 가지는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그리스도교회(CCJ) 와의 선교협력위원회를 2020에는 신형 코로나 감염 영향으로 가지지 못했지만 지난 2021년12월9일, 제19회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가졌다.

KCCJ에서는 총회장 中江洋一목사를 비롯하여 신 임원들과, CCJ에서는 대회의장 有賀文彦목사와 섭외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금년에도 위원회는 2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는 공개 강연회, 2부는 종래의 위원회를 가졌다. 먼저 제1부의 공개 강연회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의장이며 일본 밥티스트연맹 市川八幡그리스도교회 요시타카 카노우(吉高 叶)목사를 강사로, '화해의 주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라는 주제의 강연과 함께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온라인 강연회에 참가한 양 교회의 참가자는 약80명(KCCJ참가 35명)이었다.

제2부의 선교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 선출된 양 교회의 신 임원의 소개와 함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양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나누었다.

관서지방회

2022년 신년사경회 개최

채은숙목사(오가키교회)를 강사로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한 2022년 신년사경회가 <성서 안에서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1월 9일(주일)과 10일(월)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관서지방회에 인접한 중부지방회 교회를 기도 안에 기억하기 위하여 오가키교회를 섬기고 있는 채은숙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다. 첫째 날은 주일 오후3시에 오사카교회에서 열렸고(44명 참석), <입다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사사기 11:34-40)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둘째 날은 월요일 오후6시에 교토남부교회에서 열렸고(32명 참석), <삼손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사기13: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동시에 오사카교회와 교토남부교회 유튜브에서 라이브 발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날 오후 3시부터 헌법위원장 정연원목사(오사카교회)를 강사로 하여, <총회헌법과 실무>라는 주제로 교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19명 참여). (전도부서기 김유양전도사)

品川教会

이광우명예장로 소천

31년간 시나가와교회서 봉사

品川교회 이광우명예장로가 지난 2021년8월13일 소천하였다. 향년 88세였다.

故·이광우장로는 1933년6월에 출생하여 시나가와교회에서 1991년 6월에 장로 장립을 받아 교회를 섬겨왔다.

2003년 정년 은퇴와 함께 명예장로로 추대를 받았다.

「청년을 위한 연수회」 개최 안내

일　　시 : 2022년 2월23일(공휴일/수) 13시~16시
장　　소 : 나고야교회 (대면과 온라인 병행개최 예정)
교 통 비 : 중부지방회 참가자에 한하여 전액보조 (타지방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성명/소속교회/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yoo.docu@gmail.com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개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교회에서도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개회예배, 대표발제, 임원 간증의 시간, 의견교환, 성경퀴즈 등.

公　　告

福音新聞第803号（2021年２月27日付）における川崎教会公告の字句修正として下記の下線部分の「・建物」の語句を付加する。

社会福祉法人青丘社への4000万融資のため土地・建物を担保に供する。

東京中央教会牧師請聘

・資　　格：在日大韓基督教会所属牧師
・提出書類：①履歴書(写真添付) ②自己紹介文
・提 出 先：請聘委員会（jhahn@james-trans.com/ root@haitai.co.jp）
・提出期間：2022年２月27日迄

臨時堂会長 金柄鎬牧師

2022년/제36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外キ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2022년1월28일에 제36회 전국협의회를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 코로나 이후 이민 사회의 역사적 과제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제하에 각 지역 외기련(外キ連) 및 외기협(外キ協) 가맹 교파 · 단체의 대표자들 45명이 참가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외기협 운동을 공유하고 오늘의 과제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인 재일 외국인들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입국 관리 수용소에서의 비 인도적 취급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 말씀, 특히 마가복음(1 : 40~45)을 통하여 주어진 오늘날 교회의 선교 과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전국협의회를 가지기 전에, 1/8 〈국제 인권법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 1/14 〈외국의 뿌리를 가진 아이들의 현재〉, 1/21 〈이민 사회의 젠더와 빈곤〉, 3회에 걸쳐 매회 4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온라인 공개 강좌를 가져, 현재 코로나 사태의 일본 사회에서 재일 외국인이 처해져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또한 일본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80년대 지문 날인 거부 운동에 기독교회의 세계적 네트웍을 통한 지원과 연대가 활발하였던 때에 일본의 전국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구체와로서 1987년에 외기협이 결성되었습니다. 1993년에 외국인 등록법이 개선되면서 영주자 · 특별영주자는 지문 날인이 면제되었지만, 외기협은 1998년 모든 재일 외국인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을 〈교회의 선교 과제〉인 적을 확인하고 〈외국인 주민 기본법〉을 작성하여 그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난민 신청자와 초과 체류자에 대한 긴급 지원, 2021년에는 입국 관리국 난민법의 개악(改悪) 저지를 위해 시민 단체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오늘의 재일 외국인 인권 문제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 책임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오늘의 일본 사회의 문제를 알고, 외기협의 행보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외기협 운동이 담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의 에큐메니칼적인 협력과 세계 교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각 교회의 복음 선교의 과제로서 각 지역에서 재일 외국인의 인권 확립을 위한 활동과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담당하는 은혜와 기쁨을 전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팬데믹의 종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각지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존재를 잘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인권이 지키지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민족 ·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해 가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日本 · 韓国 · 在日教会의 공동작업을 통해 역사를 마주하고 진실과 화해를 향한 대화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후쿠시마〉의 외국인 피해자와 그 아이들의 공동 프로그램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와, 또 다양한 시민 단체와 협력하면서, 난민 신청자 · 초과 체류자의 생활 지원 활동을 하면서 지방 자치 관청에 〈인종 차별 철폐 기본 조례〉의 제정, 국가에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 및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라인 네트웍을 통하여 〈제36회『외국인 주민 기본법』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를 개최하여, 오늘의 과제와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은 귀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희망으로 삼아 다양한 네트웍을 활용하면서 이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맡겨진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기로 결의합니다.

2022년 1 월28일

제36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